

# “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 협력·통합 교육환경 만들 것”

(2030년 초반)

##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공동공약

핵심 의제로 교육체제 개편 내세워 선진국 수준 대입자격고사 도입 추진 기후대응·AI 등 미래교육 방향 제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오른쪽에서 세번째)를 비롯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12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교육대전환 공동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체제 개편 방향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왼쪽부터)이용기 경북교육감 후보, 전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안민석 경기교육감 후보, 고의숙 제주교육감 후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 임병구 인천교육감 후보, 이용기 경북교육감 후보. /이현진 기자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국 15개 시도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1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30년대 초반까지 수능·내신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교육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입자격고사 도입과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대학 서열 해소 등을 공동 의제로 제시하며 “입시 경쟁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선언은 진보 교육감 진영이 지역 교육 현안을 넘어 입시 경쟁과 대학 서열 중심의 교육체제 개편을 선거 핵심 의제로 내세워 교육 의제 주도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를 비롯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들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교육대전환 공동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체제 개편 방향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

했다.

후보들은 “학생들은 여전히 입시 위주의 교육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막대한 사교육비로 가계 부담과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경쟁과 서열 중심의 입시교육을 넘어 교육의 근본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첫 번째 공약으로 입시 경쟁 교육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제시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2027년까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반복적인 제도 개편이 아닌 입시 경쟁 체제

자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교육 선진국 수준의 대입자격고사 도입을 추진하고, 늦어도 2030년대 초반까지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서열 체제 해소와 지방대학 균형 발전도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후보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대학 서열 완화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거점국립대 공동학위제와 학사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역연합대학체를 구축해 지방대학 간 연합과 통합을 활

성화하고 국가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 체제 개편 방향도 포함됐다. 후보들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고교 서열 구조를 해소하고 평준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른바 ‘특권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해 경쟁과 분리가 아닌 협력과 통합의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교육과 교육 주체 권리 보장도 공동 공약에 담겼다. 후보들은 민주

주의 교육 강화를 통해 “반민주적 침탈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교사의 교육권 및 교육과정 자율성 보장 ▲학생 학습권·인권 보호 ▲교직원 정치기본권 보장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속 추진 등을 약속했다.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하는 미래교육 방향도 제시했다. 후보들은 생태·기후정의 교육 강화와 함께 AI 리터러시 및 비판적 사고력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하며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기술을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공약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를 비롯해 안민석 경기교육감 후보, 임병구 인천교육감 후보, 강삼영 강원교육감 후보, 송영기 경남교육감 후보, 이용기 경북교육감 후보, 장관호 광주전남교육감 후보, 임성무 대구교육감 후보, 성광진 대전교육감 후보, 임전수 세종교육감 후보, 조용식 울산교육감 후보, 전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고의숙 제주교육감 후보, 이병도 충남교육감 후보, 김성근 충북교육감 후보 등 15명이 참여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서울시, ‘다자녀 특별공급’ 부정청약 철폐

### 청약 브로커 등 주택법 위반 확인 “부동산 불법행위 고강도 수사 지속”



서울시청 전경.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서울 광진구 인기 아파트 청약 당첨과 불법 전매를 공모한 브로커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최고 3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2023년 광진구 인기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 부정청약 및 불법 전매 등 주택법을 위반한 일당 5명을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

민사국 수사결과 청약 브로커들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당첨 확률이 높은 3명의 자녀를 둔 청약통장 소유자 A와 사전 공모해 아파트를 당첨

받은 후 다른 공모자와 불법전매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는 B의 알선으로 청약 브로커 C에게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기고 수천만원을 받은 뒤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접수해 광진구 아파트 42평형에 당첨됐다. 이후 A는 C의 소개로 D에게 분양권 관련 서류를 넘기고 추가 대가를 받

았으며, D는 공범 E에게 서류를 다시 넘겨 전매제한 기간 내 불법 전매를 추진했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프리미엄이 수억 원대로 오르자 A와 D 사이에 추가 보상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사건이 드러났다. A와 D는 고소와 신고를 취하며 사건 무마를 시도했으나, 서울시는 민원 내용을 토대로 통신·금융거래 내역 등을 조사해 관련자 5명의 부정청약·불법전매·불법 알선 혐의를 확인하고 전원 형사입건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정직하게 청약접수를 쌓아온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중대한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경기도, 철도안전정보 접근권한 확보

교통안전소 협의... 200억 절감 효과

경기도가 정부의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무상으로 활용하게 돼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통해 철도안전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시행된 ‘경기도 철도 안전 지원 조례’에 따라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안전정보를 분석·관리의무가 생긴 데 따른 것이다. 도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약 219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

석,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운영 중인 기존시스템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합의로 도는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일시·종류 등 7종의 데이터를 제공 받게됐다. 이를 통해 독자 시스템 구축비 219억 원과 데이터베이스 개량비 등 추가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선제적인 철도안전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도는 사용자 환경 개선 등 시스템 최적화 작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 인천시, 인천항 내항 1·8 부두 재개발 본격화

실시계획 승인단계 행정력 집중

인천광역시 해안수산부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을 확정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2007년 내항 개방 논의가 시작된 이후 19년 만에 사업계획 변경 내용이 최종 반영된 것으로, 사업 추진

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은 당초 2028년에서 2029년까지로 1년 연장됐으며, 총 사업비는 국비 283억 원을 포함한 6371억 원 규모로 조정됐다. 사업은 인천광역시와 인천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해 추진된다.

인천시는 현재 마지막 행정 절차인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후 본격적인 착공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재개발 사업을 통해 오랜 기간 폐쇄돼 있던 내항 1·8부두의 노후 담장이 철거되고, 수변데크와 친수광장 등 시민 친화형 공간이 조성된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은 해양 문화 기능과 도심 휴식 기능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오늘의 날씨

5월 13일 (수) 음력 : 3월 27일

수도권 날씨 14~2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25 | 해질 / 19:32

지역별 날씨: 연천 12/25, 동두천 13/25, 가평 12/25, 파주 13/24, 서울 14/25, 양평 14/26, 인천 13/22, 수원 14/24, 용인 14/24, 평택 13/2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미 국방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만나 이란 군사작전 협력 당부 /사진 뉴시스  
▲ 美해군, ‘극비’ 핵무장 잠수함 위치 이례적 공개...이란 압박

▲ 트럼프 방중 수행단에 테슬라·애플 CEO 합류...엔비디아는 빠져  
▲ 中관영지, 일제히 미중협력 강조...트럼프 방중 앞 우호 기류 조성

▲ 중국 화물우주선 텐저우 10호, 우주정거장 도킹 성공  
▲ 이란 의회의장, 트럼프 압박에 “시간 끌수록 대가 커질 것”